

11 월 30 일 2025 년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 예배 초청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 환영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다함께
- 경배와 찬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다함께
- 대표기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김영란 집사
- 광고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인도자
- 설교 감사의 기도 (단 6: 10) 이진수 목사
- 결단찬양 "어려운 일 당할 때" 다함께
- 축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소서 이진수 목사



24742 La Playa place Hayward, CA 94545 Tel: 510-732-9191
Fax: 510-732-1912 교회 홈페이지: hkb.church

지난 주 설교 요약

구원을 감사하라” (시편 116:12-13)

추수 감사절을 맞이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을 하나 하나 찾아 나눈다면 만 가지가 넘겠지만 우리가 감사해야 할 가장 큰, 가장 귀한 축복과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본문 12-13 절에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숨, 생명입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라면 살수만 있다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줄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생명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라면 평소에 하지 못할 일들도 합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아람, 즉 시리아 군대가 북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둘러 포위하고 아사 작전을 하여 성 안에 식량이 다 떨어져서 절망적인 굶주림이 지속되었을 때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살기를 바라면, 자기 자식이 살기를 바라면 나도 모르게 이기적이 되어 이성도, 상식도, 도덕도, 윤리도 버리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 땅에 몇십년 더 살기 위해서, 더 살게 하겠다고 그렇게 몸부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땅에서 사는 100년 남짓의 짧은 육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생명이 있다고 알려 줍니다. 죽음 후에 영원한 세계,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즉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 후에 있는 천국과 지옥, 영원한 생명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논리와 윤리, 과학, 지식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죽으시고 이를 위하여 부활하신 구원자시오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죄의 형벌을 영원토록 지옥에서 치루고 살아야 합니다. 영원한 저주의 생명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이름,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신 구원자시오 삶의 주인되심을 영접하여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 사람은 영생, 즉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축복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천국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누구에게나 영생과, 천국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천국에 가는 구원 받은 사람은 적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하여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추수 감사절을 맞이하며 우리가 감사해야 할 만 가지 은혜 속에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섬기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소식

1. **환영** –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2. **추수 감사예배** – 지난 주일 추수감사절 만찬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3. **전도회 월례회** – 오늘 예배 후에는 전도회
월례회로 모입니다.
4. **성찬식** – 12 월 7 일 주일 예배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5. **부장모임** – 12 월 7 일 주일 오후에
부장모임이 있습니다.
6. **전도회 성경공부** – 전도회 성경공부는
12 월까지 휴강을 합니다.
7. **성도총회** – 성도총회가 12 월 14 일 주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안건 : 2025 결산 / 2026 인선 & 예산
8. **성탄예배** – 12 월 21 일 주일은 성탄절 예배로
드립니다. 2 부 특별 순서에 참여하실 분들은
(개인 혹은 그룹) 행사부장님께 알려
주십시오.
9. **교회 주소록** - 주소나 전화번호 변경이 계신 성도님들은
12 월 28 일 까지 총무부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및 모임

| | | |
|------|---------|----------------|
| 11 월 | 각기관 월례회 | 11 월 30 일 (주일) |
| 12 월 | 성탄 주일예배 | 12 월 21 일 (주일) |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

| | 11/30 | 12/07 | 12/14 | 12 월/21 |
|------|------------|-------|-------|---------|
| 대표기도 | 김 영란 | 손 다니엘 | 유 경주 | 조 정옥 |
| 현화성도 | 차 은희 | 심 영민 | 한 동윤 | 김 현옥 |
| 봉사당번 | 각기관 월례회 | 믿음구역 | 소망구역 | 소망구역 |

예배출석자 및 현금

| | |
|-----------|--|
| 지난주 예배 출석 | |
| 지난주 현금 통계 | |

후원 선교지 안내

| 구역 | 구역인도자 구역장 | 연락처 | 선교사 |
|------|--------------|--------------|------------------|
| 사랑구역 | 유 경주 | 510-634-9374 | 정 주환(소망공동체) |
| | 유 경애 | 925-719-3673 | 장 철호 (미얀마) |
| 믿음구역 | 심 영민 | 415-205-2631 | 박 완주(헝가리집시) |
| | 손 정임 | 808-277-1072 | K 선교사 (Malaysia) |
| 소망구역 | 조 현숙 | 510-396-6952 | 김 정림 (탄자니아) |
| | 한 영미 | 510-410-8718 | 조 항권 (우간다) |

성경공부

| | |
|---------------|------|
| 새가족 성경공부 | 4 주 |
| 확신의 삶 | 7 주 |
| TEE 성경공부-12 주 | 12 주 |
| 성경 통독방 | 52 주 |

눈을 밝게 하는 깨달음

두주 전에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늘 일상적인 생활을 하던 곳을 떠나 여행이나 새로운 곳을 가면 새롭게 보고, 만나고, 대화하며 경험 함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기에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는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저는 한국에 가면 남대문 시장에 있는 안경점에서 안경을 맞춥니다. 남대문 시장에 가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안경점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늘 가는 곳이 안경점이 있는데 가격도 싸고 눈 검사 한후에 1시간 안에 안경을 맞추어 줍니다. 이번에 안경을 맞추려고 한 이유는 예배를 드릴 때 본당 뒤에 달린 TV 화면에 성경구절 글자들이 흐리게 보여 읽기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안경사님에게 지금 제 나이에 다들 책이나 컴퓨터 작업을 할 때 돋보기 안경을 쓰는데 저는 안경 없이도 책을 읽을 수 있는 노안이 없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눈을 검사하시면서 제가 노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쉽게 설명하시는 것이 종이 노트북 컴퓨터 모형을 보이시며 화면에 쓴 글을 읽을 때 어느 정도 거리에서 어떤 자세로 볼 때 글이 잘 보이시냐고 해서 컴퓨터 화면에 쓰여진 글이 잘 보일 수 있는 거리까지 몸과 머리를 움직이자 지금 제가 너무 가까이에서 보는 것이기에 그것이 노안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보며 일하면 거북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뜯수를 맞추어 안경을 씌워주시는데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도 얼마나 컴퓨터의 글이 선명하게 보이고 읽기 편한지요. 그래서 운전을 할 때나 멀리 보는 것을 볼 때 쓰는 안경과 컴퓨터나 책을 읽을 때 사용하는 안경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다고 하셔서 맞추어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도 이 칼럼을 컴퓨터에서 작성하면서 얼마나 눈이 편한지 감사하며 쓰고 있습니다 (!). 제가 가지고 있던 자부심, 즉 아직도 노안 돋보기 안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지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신 안경사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나는 잘 보고, 잘 보인다고 스스로 자랑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영적인 노안과 근시를 가지고 있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지 못하고, 지금 내 삶 속에 원하시는 말씀과 명령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히시기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원하심, 인도하심을 바로 보고 따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기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 속에 깨닫고 살아가는 기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Worship services & Meetings*

| | | |
|--|--|---|
| 주일대예배 <i>Sunday Main Service</i> | 오전 10 시 30 분 <i>10:30 A.M.</i> | 본당 <i>Main Sactuary</i> |
| 어린이예배 <i>Sunday Children's Service</i> | 오전 10 시 30 분 <i>10:30 A.M.</i> | 유치부실 <i>Children's Room</i> |
| 영어예배 <i>Sunday English Service</i> | 오전 10 시 30 분 <i>10:30 A.M.</i> | 영어부예배실 <i>English Service Room</i> |
| 주일성경공부 <i>Sunday School</i> | 주일오후 12 시 <i>12:00 P.M.</i> | 유년부실 <i>Group Class Room</i> |
| 새벽기도회 <i>Morning Prayer Meeting</i> | 매일 화-토 6 시 <i>DailyT-Sat 6 a.m.</i> | 본당 <i>Main Sactuary</i> |
| 구역모임 <i>Local House Meeting</i> | 매 월 <i>Monthly</i> | 구역별 각가정 <i>Local church member's home</i> |

섬기는분들 *Church's Servants*

| | | |
|--|--------------|----------------------------|
| 담임목사:이진수 <i>Sr. Pastor: Timothy Y.</i> | 510-415-0671 | timjdsn@gmail.com |
| Youth Ministry: Erik & annie Komoto | 951-295-4769 | Erik.Komoto@googlemail.org |
| 어린이교회: 이은진 <i>Children's Ministry: Joy Song</i> | 510-415-1696 | Ejoysong@gmail.com |

교회약도 *Church Map*

